

# 한국 대학도서관경영 연구의 탈식민성 담론 전략

## Decolonization Discourse Strategy on the Academic Library Management Study in Korea

이 용 재(Yong-Jae Lee)\*

### < 목 차 >

I. 서론	1. 한국적 전략적 계획 수립
II. 탈식민성 담론이란 무엇인가	2. 한국형 조직활성화 전략 강구
III. 한국 문헌정보학의 탈식민성 담론	3. 사서주도성 강화
IV. 한국 대학도서관의 식민주조	VI. 결론에 대신하여 - '창조학'으로서의 문헌정보학
V. '우리' 대학도서관 경영을 위한 탈식민성 담론 전략	

### 초 록

이 연구는 한국적 문헌정보학의 정립을 위한 기초적 담론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최근까지의 한국 인문사회과학에서의 '탈식민성 담론'을 조망하여 제시하였고, 아울러 한국 문헌정보학에서의 '탈식민성 담론'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탈식민성 담론'이란 서구의 과도한 영향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을 말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탈식민성 담론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도서관이 안고 있는 식민주조를 분석하였으며, 한국 대학도서관의 식민성을 탈피하기 위한 담론 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적 전략적 계획의 수립, 한국형 조직활성화 전략의 강구, 사서주도성의 강화 등이다.

주제어: 대학도서관, 도서관경영, 탈식민성 담론, 한국적 문헌정보학, 현단계 연구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ies on the establishment of Korean LIS(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hich is suitable for Korean socie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traced the trends of 'decolonization discourse'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of Korea. And this study also identified 'decolonization discourse' in the LIS of Korea. 'Decolonization discourse' here means an effort in scholarly activities to break out of overly dominant western influences. With the context of 'decolonization discourse', this study analysed the colonized situation of Korean academic libraries, and suggested the decolonization discourse strategies to make a breakthrough in this situation. As concrete strategies, this study proposed the setting-up of strategic plan and organization development plan those are suitable for Korean academic libraries, and the intensification of Korean librarians' leadership.

Key Words: Academic Libraries, Library Management, Decolonization Strategy, Koreanistic Lis, Studies of the Present Developmental Stage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lyj5384@pusan.ac.kr)

• 접수일: 2005년 2월 19일 • 최종심사일: 2005년 2월 20일 • 최종심사일: 2005년 3월 4일

## I. 서론

나는 도서관 경영에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한국 사람이고 동시에 문헌정보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도서관에 주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외국의 도서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편타당한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인류 전체를 위한 도서관의 발전에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문헌정보학자가 미국 사회의 도서관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한국의 문헌정보학자가 한국의 도서관, 기록관, 정보센터 등과 같은 지식정보기관을 통하여 구현되는 문헌정보 현상을 주로 연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물론 한국 문헌정보학자가 외국의 문헌정보 현상이나 전세계 문헌정보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문헌정보학자가 미국의 문헌정보 현상을 연구한다고 하여, 그가 미국의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 문헌정보학자가 외국의 연구동향과 현장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와 그 적용대상인 한국의 지식정보기관 현장의 발전을 위한 것임을 모두 수긍할 것이다.

그런데 최성진은 광복 50주년이자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50주년인 1995년에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를 전반적으로 진단하면서, “도서관봉사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에서 수행되는 문헌정보학 연구의 반 이상이 이 나라의 도서관봉사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sup>1)</sup>라고 한국 문헌정보학과 한국 도서관 현장 사이의 괴리를 통렬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선진 도서관 현장을 바탕으로 정립된 외국의 이론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려면 우리 사회의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야 하며, 또한 한국 문헌정보학의 정립을 위해서는 한국 도서관서비스와 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한국의 문헌정보학자들이 한국의 현실에 기반하는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나아가 서로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인용하고 비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sup>2)</sup>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현실에 적합한 문헌정보학을 주창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김정근을 꼽을 수 있다. 한국 도서관 현장과 유리된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에 대하여 그는 “나의 눈앞에는 너무나도 한국적인 도서관 현장이 처연하게 땅 위에 누워 있는데 강단의 언어와 처방은 외국어로 하늘을 날고 있었다. 병은 보통의 한국병인데 처방은 턱없이 고급이었다”<sup>3)</sup>라고 날카롭게 진단한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을 ‘식민지’로 본다. 즉, 도서관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모르는 비전문직 관장이 조직의 꼭대기에 앉아 식민지 총독처럼 부하 직원들을 회유하고 현상유지 수준에서 지내다

1) 최성진,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1995. 9), p.10.

2) 상계논문, pp.11-13.

3)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서울 : 한울, 1995), p.10.

가 떠나는 상황이 식민지 풍경과 같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식민 상황의 도서관에서 직원들은 중세적 복종심, 실리주의, 좌절, 소심증의 포로로 머물러 있게 된다고 진단한다.<sup>4)</sup>

나 또한 한국 대학도서관의 식민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식민 상황이 근본적인 면에서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도서관 전문가(1급 정사서)가 보직이 아닌 전임의 형태로 관장이 되어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장기간 장서를 개발하고 대학의 학문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근대화의 역정을 지나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룬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한국의 학문 사회에서는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2005년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 대학도서관의 관장직은 총장에 의해 임명된 교수가 보직의 형태로 겸직하는 자리이다. 한국 대학도서관의 식민지 풍경으로 '총독'으로서의 관장 모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책을 가지고 암기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을 '독서실'로 이용하는 현상, 상당수의 교수들이 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를 하기 보다는 주로 한정된 교재와 입심에 의존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것 등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위와 같은 국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지는 않겠다. 이 글에서 내가 특히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도서관 현장의 식민 상황보다는 한국 도서관 현장과 유리된 한국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이다.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실부적합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논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나의 관심분야에서 한 사례만 논급하고자 한다.

한국 대학도서관 현장과 유리된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로는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 연구'를 들 수 있다. 1966년 안영주의 연구에서 소개된 주제전문사서 논의는 현재까지 수십 년간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주제전문사서는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관련 주제영역의 자료를 선정,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아울러 정보서비스와 서지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 직원<sup>5)</sup>으로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와 함께 다른 주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서이다.

서구 선진국에서 대학원 수준 연구를 지원하는 대학도서관에는 대체로 존재하는 주제전문사서가 한국의 대학도서관 현실에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여러 문헌정보학자들이 주제전문사서의 양성과 채용을 논의하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주제전문사서 제도는 한국 대학도서관 현장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수년간 사서들이 각종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양상은 점차 나타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특정 주제분야를 맡아 지속적으로 자료개발을 담당하고 해당 주제분야 연구자들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자료추천과 요구를 수렴하며 주제서비스를 펼치는 주제전문사서가 양성되거나 애초에 그러한 목적으로 채용되는 사례는 아직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sup>6)</sup>

4) 김정근, "광복 50년에 대학도서관은 광복되었는가: 관장 문제를 중심으로,"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1995. 9), p.91.

5) 사공 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340.

이와 같이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에서의 주제전문사서 논의는 한국 도서관 현장에 착중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표류해온 여러 연구 중의 하나이다. 김정근은 이와 관련하여 “나는 우리의 도서관 발전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현장’에 터하지 아니한 접근, ‘현단계’에 터하지 아니한 접근이란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전문사서제’나 ‘사서직의 교수신분제’의 발상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의 ‘현장’과 ‘현단계’를 벗어난 탈사회적이며 탈역사적인 접근이란 점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라고 신랄하게 지적한다.

한편 한국의 여타 사회과학의 경우, 여러 학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식민성(植民性), 몰주체성(沒主體性), 부적실성(不適實性), 외국추수성(外國追隨性), 불임성(不妊性) 등의 용어로 한국 사회과학의 지적 식민성과 현실과의 괴리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하고, ‘한국적’ 사회과학을 정립하기 위해 성찰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sup>8)</sup>

여기서는 나의 주된 관심분야인 한국 대학도서관 경영과 관련된 연구가 보다 현실적합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한국적’ 대학도서관 경영을 현재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온 한국 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의 맥락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탈식민성 담론의 개념과 여러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한국 인문사회과학 및 문헌정보학에서의 탈식민성 담론을 추적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 대학도서관이 안고 있는 식민주구조를 분석한 뒤, 한국 사회의 대학도서관 경영을 위한 탈식민성 담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탈식민성 담론이란 무엇인가

‘탈식민성 담론(Decolonization Discourse)’<sup>9)</sup>이란 한마디로 서구중심주의(Eurocentrism)를 탈

- 6) 최근 수년간 국내 대학도서관 중 한 건물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과 같이 대분류된 주제별 자료실을 운영하는 사례는 점차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이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본다. 또한 도서관 현장에서 조직개발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서의 대학원 진학을 독려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사서 개개인이 계속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실정이다.
- 7) 김정근, “사서직운동-현장사서-자질개발,”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 도서관), 제6호(1993. 11), p.2.
- 8) 이러한 작업의 주된 사례로 학술단체협의회 활동을 들 수 있다. 1988년에 창립된 학술단체협의회는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온 연합심포지엄을 통하여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을 토론함으로써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정체성과 진로에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타 사회과학에서 한국 사회과학의 식민성을 비판하고 한국적 사회과학의 정립을 모색하는 여러 연구자의 지적 역정을 추적하고 제반 탈식민 논의를 집대성한 연구서로는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서울: 지식산업사, 2000)가 있다.
- 9) ‘탈식민성 담론’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어온 담론이다. 사실 탈식민성 담론은 여러 학자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국면을 가진다. 예컨대 국내에서 ‘탈식민주의’라고 번역되어온 ‘Postcolonialism’의 경우, 접두사 post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양가성을 가진다. 즉, post를 이후(after)로 해석하면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할 일종의 유산이고, ‘탈피’나 ‘초극(beyond)’의 의미로 해석하면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의 해체와 극복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이경원,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p.24]. 나아가 식민성이라는 개념의 경우에도 식민주 시대의 압제만을

피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화=서구화’라는 공식을 거부하는 논의이기도 하다. 여기서 ‘서구’란 식민경영의 경험이 있는 유럽 제국을 말한다. 근대 이후(아니면 그 이전부터) 서구는 세계를 자신과 자신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해왔다. 서구인에게 있어 비서구인이란 이해와 공존의 대상이라기보다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물리적, 강압적 식민지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정신적인 면에서 후기식민주의가 되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서구의 식민주의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대표적 학자로 사이드(Edward W. Said)를 들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sup>10)</sup>을 통해 서구인의 골수에 깃든 ‘서구우월주의’와 동양에 대한 서구인의 비뚤어진 시각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에 의하면,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sup>11)</sup>이다. 그는 또한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을 소재로 하는 유럽의 공상만화가 아니라 하나의 이론 및 실천체제로 창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창조를 위하여 수 세대 동안 엄청난 물질적 투자가 행해졌다. 이러한 계속된 투자에 의해, 동양에 관한 지식체로서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인의 의식 속에 동양을 여과하여 주입하기 위한 필터로 만들어졌다”<sup>12)</sup>라고 말한다.

사실 ‘동양(the Orient)’라는 것도 애매한 용어이다. 동양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지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상당히 서구중심주의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동양 안에는 근동(Near East), 중동(Middle East), 극동(Far East) 등이 있다. 따라서 중국, 한국, 일본은 극동인 셈인데, 서구인이 극동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극동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회화적인 일이다. 극동방송, 극동연구소 등의 이름은 오리엔탈리즘의 손에 놓여있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대응전략은 현재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탈식민주의의 한 흐름을 반영하는 *The Empire Writes Back*<sup>13)</sup>을 보면, “Replacing Language, Replacing the Text, Replacing the Theory” 등의 전략이 나온다. 즉, 언어를 교체하고 텍스트를 다시 쓰고 이론을 바꿈으로써 ‘중심과 주변의 자립바꿈’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탈식민주의 전략 중 ‘되받아 쓰기’를 살펴보면, 그것은 풍자적 모방(패러디)이란 기법을 통해 경전 또는 걸작으로 여겨져온 서구의 작품들을 조롱하고 비꼬고 해체한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는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목하며 『로빈슨 크루소』에 대해서는 크루소 보다 흑인소년 프라이데이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서구가 오리엔탈

의미하느냐 아니면 식민해방 이후의 문화적 식민성까지를 의미하느냐에 따라 논의가 달라진다. 따라서 여기서 탈식민성 담론을 일률적으로 개념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의 탈식민성 담론은 서구세계에 대한 문화적, 지적 종속성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학문적 논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10)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8).

11) Edward W. Said,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서울: 교보문고, 1996), p.16.

12) 상계서, pp.22-23.

13)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이석호 역(서울: 민음사, 1996).

리즘의 시각으로 식민지 또는 제3세계를 향하여 서구의 정치적·문화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에 반발하여 기성화된 이미지를 깨뜨리고 뒤바꾸어 놓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지적 식민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의 탈식민성 담론이다.

탈식민성 담론과 관련한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최근 논의 중에서 먼저 살펴보는 영역은 영미 문학계 학자들의 움직임이다. 이들은 주로 《외국문학》이라는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강내희, 김성곤, 정정호, 권택영 등의 논자들이다. 이들은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식민주의 문학과 이론을 소개하면서 이를 우리 문학의 비평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물꼬를 튼 대표적인 논자인 강내희는 영문학이 19세기 제국주의의 지배문화에 의해 본격화된 서구의 학문분야임을 지적하면서, 영문학 연구자들이 자칫 빠져들기 쉬운 서구식민 이데올로기의 위험을 경고한다. 그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외국이론을 읽는 저항독서 방식인 ‘버텨읽기’를 하자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페미니즘 영역에서의 탈식민운동이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인류학자 조한혜정을 들 수 있다. 조한혜정은 『한국의 여성과 남성』<sup>14)</sup>이라는 책에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주변적 위치가 갖는 변혁 잠재성을 강조하였다. 조한혜정의 대표적인 저서이자 우리 사회의 탈식민성에 대한 의식과 담론을 촉발시킨 책으로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시리즈<sup>15)</sup>를 들 수 있다. 이 책들을 통하여, 조한혜정은 탈식민화의 방법론으로 지난 수세기 동안 ‘보편성’의 자리에서 군림해온 서구를 상대화하여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서구의 권위주의적 언설을 해체하고 서구에 의해 식민지적 상태에서 심하게 타자화(他者化)된 우리 자신을 다시 ‘타자화’함으로써 재구성해 나가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탈식민주의 움직임을 학술적 글쓰기 차원에서 가동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학계가 명목적이든 암묵적이든 동의하고 수용해온 ‘논문중심주의’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성 학계의 학술적 글쓰기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논문중심주의’란 철학자 김영민이 표현한 것으로, ‘우리 학인(學人)들이 서구사회가 근대에 들어와 성립시킨 특정한 글쓰기 방식에 불과한 논문 형식에 강박적으로 얽매여있는 상태’를 말한다. 김영민은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sup>16)</sup>라는 책에서 서구의 논문형식과 이론을 추종하는 이 땅의 많은 학자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학문은 논문을 위한 논문을 쓰는 연중행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진단한다. 아래에 그의 말을 옮겨본다.

이 땅의 정신문화적 풍토를 일러 ‘서구추수주의’니 또 심하게는 ‘예속 상태’라고까지 비판해온 이들이 적지 않지만, 나는 논문이라는 글쓰기의 형식이야말로 죽대없이 학문을 해온 이 땅의 지식인들을 묶어두는 가장

14) 조한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9).

15) 조한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1~3』(서울 : 포하나의 문화, 1992-1994).

16)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서울 : 민음사, 1996).

원형적인 차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학문적 풍토가 어떤 식이든, 또 어느 정도든 서구에 예측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논문중심주의'야말로 그 예측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자 또한 가장 분명한 증좌일 것이다. 지금의 우리에게 논문은 표현과 전달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학문성'이라는 우리의 생명력을 독점함으로써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독재자이다. 이미 우리의 학문은 논문에게 바치는 연중 제사로 전락하고 말았다.<sup>17)</sup>

김영민이 역설하는 논문중심주의의 타파는 논문 자체에 대한 거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논문이라는 형식성이 학문성을 전유할 수 있다고 믿는 허위의식과 강박 그리고 이를 가능케 만든 문화 역학을 교정하자는 것이다.<sup>18)</sup>

영문학자 신광현은 이러한 논의와 궤를 같이 하면서, “대학의 담론으로서의 논문”<sup>19)</sup>이라는 글에서 기존의 논문 형식이 새로운 지식을 담아내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즉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되고 서론은 논문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고 결론은 그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하며, 본론은 논문의 주장을 통일성과 긴밀성을 갖고 증명하는 식으로 쓰는 기존의 논문은 지식의 다원성과 합법칙적이지 않은 면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논문 문체로는 인문적 사고와 자기반성적 깊이와 대상세계와의 상호연관성을 긴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논문에서도 비유와 수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탈식민성 담론 중 학술적 글쓰기와 관련한 이론적 작업은 최근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여기서 그 모든 논자의 담론을 다룰 수는 없으나, 최근에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분야의 여러 학자가 연대하여 결성한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보기에 논급하고자 한다. 이 모임의 회장인 이기상은 우리말로 학문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말로 학문합시다”에서 풍겨 나오는 뉘앙스는 이제 한번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뜻이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몸으로 부대끼는 문제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여 우리 스스로 해결방안도 제시해보자는 말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 사건, 문제들을 외국 사람들에게 물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풀려고 노력해보자는 뜻이 깔려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말로 학문을 해왔는지는 몰라도 그때의 우리말은 그저 외국말을 한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sup>20)</sup>

또한 그는 자생적인 이론 만들기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첫째, 이론은 우리의 생활세계에 뿌리를

17) 상계서, p.17.

18) 상계서, p.23.

19) 신광현, “대학의 담론으로서의 논문: 형식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 사회비평, 제4호(1996), pp.177-200.

20) 이기상, “세계화시대에 한국 지성인의 역할,” 사이, 창간호(2002, 7), p.13.

두어야 하고(공간성, 영토성) 둘째, 이 땅에 사는 한국인으로서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일체감이 강조되어야 하며(정체성, 동질성) 셋째,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고(주체성) 넷째, 우리가 세계 속의 한국인이 되어야 함을 제시한다.<sup>21)</sup>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정치학자 김영명이 우리말로 학문하자는 주장을 분명한 어조로 전개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우리 사회과학’은 “우리 삶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말과 글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sup>22)</sup>이다. 그는 ‘우리 사회과학’을 정립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한글 사회과학’을 제시한다. 즉, 우리의 말과 글로 사회과학을 하자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말로 생각하고 한글로 쓰자. 학자들은 영어로 먼저 생각하고 우리 말은 나중에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해 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안 된다. 둘째, 한자나 영문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괄호 속에 넣어 쓰자. 셋째, 외국 말 개념은 반드시 번역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말을 생각해 보자.<sup>23)</sup>

다음은 동양학 영역에서의 탈식민주의 움직임이다. 이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선구적으로 표출해온 학자로 김용욱을 들 수 있다. 그는 동서양의 학문적 대가들이 구사해온 다양하고 자유로운 논문 양식을 언급하면서 논문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 학자들을 질타한다. 그는 장자(莊子)가 인간의 논의(論議)에 대하여 “하늘 아래의 모든 성스러운 법칙 즉 논술의 형식을 부숴버려라. 그리하면 비로소 민중들이 더불어 서로 논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sup>24)</sup>라고 언급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민중과 소통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sup>25)</sup>

김용욱은 특히 번역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sup>26)</sup>라는 책에서 번역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데, 번역을 중요시하는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문헌을 읽을 수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위세를 보이고 있을 뿐 실력있는 학자가 오랜 시간을 바쳐 성실한 번역을 하여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외국 이론을 풀어내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만이 그것에 은밀하게 기대어 동족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야말로 오리엔탈리즘에 물든 식민지 지식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다.

또한 정재서는 『동양적인 것의 슬픔』<sup>27)</sup>이라는 책에서 동양학 속에 깊숙하게 깃들여 있는 오리엔탈리즘의 문제를 다루고 그 극복방법의 하나로 고전번역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말을 옮겨본다.

21) 상계논문, pp.23-24.

22) 김영명, “한글 사회과학을 세우자.”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2호(2000, 여름), p.190.

23) 상계논문, p.207.

24) 殫殘天下之聖法, 而民始可與論議.

25) 김용욱, 최영애, 도올논문집(서울: 통나무, 1991), p.94.

26) 김용욱,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통나무, 1998).

27) 정재서, 동양적인 것의 슬픔(서울: 살림, 1997).



(내가 말하는) '동양적인 것'이란 마르크스의 표현대로라면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어야만 하는, 그래서 '동양' 그 자체라기보다 '동양적인 것'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 '슬픔'은 단순한 이분법적 사유에서 촉발된 비분이 아니라 그러한 '동양적인 것'이 생산해왔고 지금도 온존해 있는 부당한 문화적, 학문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전반이다.<sup>28)</sup>

조동일도 『우리 학문의 길』<sup>29)</sup>, 『인문학문의 사명』<sup>30)</sup>, 『이 땅에서 학문하기』<sup>31)</sup> 등의 일련의 저서를 통해 우리 학문의 식민성을 통렬하게 고발하고, 우리나라 학문이 수입의 학문에서 자립의 학문으로 나아가 창조의 학문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한국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탈식민성 담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다. 즉, 우리나라 사회과학의 서구추수성(西歐追隨性)을 반성하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우리' 사회과학을 이루어가자는 논의들이 사회과학의 각 분야에서 때로는 주류 학회에서 때로는 소규모 모임이나 개인의 작업이나 글을 통하여 분출되어 왔다. 이러한 탈식민성 담론들은 '토착화', '한국적', '자이준거적', '주체적', '적실적' 등과 같은 개념어 또는 수식어를 공유한다. 나는 이러한 한국 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이 해방이후 최근까지 전개되어온 양상을 분야별로 조명하는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그 작업은 각 분야의 탈식민성 담론의 전개양상을 추적하고 해당 문헌을 발굴하고 대표적인 문헌은 초록한 뒤 각 분야 탈식민성 담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글을 쓰는 일이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 『한국 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sup>32)</sup>라는 책이 생산되었다.

이상에서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식민성 담론의 여러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모든 논자들의 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고, 일부 논자들의 선명한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의 학문과 일상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우리 학문의 식민성에 대한 대항담론을 대략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탈식민성 담론이 한국 대학도서관 경영에 대한 연구에는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으며, '한국적' 대학도서관 경영은 가능한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 최근까지의 한국 문헌정보학에서의 탈식민성 담론을 정리하여 보았다.

### Ⅲ. 한국 문헌정보학의 탈식민성 담론

여타 분야와는 달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이상과 같은 탈식민성 담론이 전국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오지 못하고 지방의 한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물론 문헌정보

28) 상계서, p19.

29) 조동일, 우리 학문의 길(서울 : 지식산업사, 1993).

30) 조동일, 인문학문의 사명(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31) 조동일, 이 땅에서 학문하기(서울 : 지식산업사, 2000).

32) 김정근 엮음, 한국 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서울 : 지식산업사, 2000).

학계 연구동향을 파악하거나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산발적으로 표현하는 연구는 있었다. 그러나 한국 문헌정보학계는 대체로 서구 문헌정보학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소개하는데 주력하여 왔을 뿐, 앞에서 소개한 최성진의 맹렬한 문제제기를 제외하고는 학계 전반에 걸쳐 탈식민성 담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교수진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공동작업실’은 지난 십수 년 동안 한국 사회 및 도서관·정보센터 현장과 유리된 문헌정보학 연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지속적인 작업을 통하여 탈식민성 담론을 형성해왔다. 한국 문헌정보학의 탈식민성 담론이 무성하게 전개되는 1990년대의 문을 연 것은 김정근의 글<sup>33)</sup>이다. 대학도서관 운동에서 사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이 글은 도서관 현장의 고질적인 허위구조와 문헌정보학 강단의 서구추수성을 명확하게 조명하였다. 이 글은 일상성과 피상성의 허위로 덮여있던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의 문제와 문헌정보학 강단의 문제를 동일한 틀 위로 끌어올려 통찰하고 그 폐단에 대해 강렬한 언어로 정문일침을 놓았다.

이순재는 문헌정보학의 사회과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학문 정체성 문제에 대한 글<sup>34)</sup>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양적 팽창의 경향 속에서 침단 이론을 수입하는 데 급급해온 한국 문헌정보학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를 인문사회과학의 맥락에서 시도하였다.<sup>35)</sup>

이후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에서의 탈식민성 담론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에서 북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러한 계통의 글들은 한국 문헌정보학이 한국 도서관·정보센터 현실상황에 대한 응전력이 부족한 것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탈식민성 담론을 특히 학술적 글쓰기와 관련하여 생산해오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단행본 형태로 제시된 첫 번째 사례는 김정근의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sup>36)</sup>이다. 이 책은 글쓴이가 한 대학도서관의 경영자로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안고 있는 주요하고 고질적인 문제를 통렬한 문장으로 규명하고 있다.<sup>37)</sup> 이 책은 대학도서관 문제를 육박전을 치루는 듯하게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렬한 문체를 사용하여 다루고 있다. 즉, 현장을 감싸 안고 현장의 치부까지 드러내며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은 특히 현장의 사서진에게 호응을 받았으며, 학술적 글쓰기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적 글쓰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은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33) 김정근, “대학도서관운동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보(전남대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연구회), 제4집(1990, 1), pp.1-32.

34) 이순재, “한국 도서관학·정보학 연구의 확대를 위한 소고: 사회과학적 함의와 관련하여,” 도서관문화, 제31권, 제6호(1990, 11, 12), pp.281-292.

35) 김정근, 김종성, “문헌정보학 분야 탈식민성 담론 개관,”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서울: 지식산업사, 2000), pp.347-348.

36) 김정근(1995), 전게서.

37) 김정근, 김종성, 전계논문, p.351.

혁신은 가능한가』<sup>38)</sup>와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sup>39)</sup>이다. 이러한 책들에는 현장과 강단이 소통하는 글쓰기, 일이 곧 글이 되는 글쓰기, 현장을 동반자 정신으로 관찰하고 현장과 깊이 있게 대화하는 질적 연구 등과 같은 탈식민성 담론과 연구작업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책들에서 제시되어 있는 학술논문 쓰기의 혁신 방안은 첫째, 우리 현장의 기본적 문제를 다루는 것(주체의 혁신) 둘째, 문제의 맥락에 근거하여 연구방법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연구방법의 혁신) 셋째, 과제와 연구방법에 걸맞는 제시기술을 채용하는 것(문체의 혁신)이다.

이수상은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단계』<sup>40)</sup>라는 책을 통하여 한국 문헌정보학의 발달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국적’ 문헌정보학의 정립을 위한 탈식민적 연구를 제안하였다. 이 책은 현대식 학문으로서 한국 문헌정보학은 6·25 전쟁 이후 미국식 교육이 이식됨으로써 받아들여졌으며,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서구의 이론을 수입하는 데 주력해왔음을 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논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문헌정보학 분야 탈식민성 담론은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의 그것과 함께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sup>41)</sup>라는 책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한국 문헌정보학 탈식민성 담론의 흐름과 개별 사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상의 내용을 언급하는 정도에서 줄이고자 한다.

#### IV. 한국 대학도서관의 식민구조

이제 이러한 한국 문헌정보학의 탈식민성 담론의 맥락에서 한국 대학도서관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논의를 풀어가려면 ‘자기성찰적’, ‘고백적’ 담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주관에 충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간주관성(間主觀性, intersubjectivity) 또는 공감대를 획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탈식민성 담론의 맥락에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경험, 관찰, 느낌 등에 충실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나는 10여년 정도 대학도서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다. 연구를 하면서 “한국 문헌정보학의 이론은 매우 근사하고 화려한데 왜 내가 접하고 느껴온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줄곧 가져왔다. 예를 들면, 문헌정보학 문헌에서는 대학도서관을 ‘대학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도무지 ‘대학의 심장’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학문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학술정보센터인가? 아니면 학생들이 자리

38) 김정근 엮음,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서울 : 한울, 1996).

39) 김정근 엮음,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서울 : 한울, 1998).

40) 이수상,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단계(서울: 한울, 1998).

41) 김정근 엮음(2000), 전거서.

에만 눈독을 들이는 거대한 ‘독서실’이자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한 장서가 가득찬 ‘책창고’인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모습은 아무래도 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후자의 경우, 사서의 모습은 대학인의 학문활동을 지원하는 ‘학문 동반자’라기 보다는 열람석과 책창고를 지키는 ‘창고관리인’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현재는 디지털환경에서 첨단 정보기술이 대학도서관 현장으로 몰려드는 이른바 ‘지식기반시대’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도서관은 그에 걸맞게 정보와 지식, 나아가 지혜까지 아우르는 학술광장(forum)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최근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을 넘어서 ‘유비쿼터스 도서관(ubiquitous library)’ 개념도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기술(IT)의 발전에 따라 도서관은 사라질 것이라는 ‘도서관종말론’은 최근 들어 학계는 물론이요 산업계에서도 오판이었음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IT의 발전으로 미래에는 도서관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득세했다. 그러나 도서관은 IT를 활용한 정보화의 길을 걸으며 지역사회 지식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등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sup>42)</sup>

이처럼 도서관 내외부의 정보환경은 급속하게 발전하는데, 왜 서구의 문헌정보학 문헌에 나오는 명실상부한 학술정보센터(또는 교수학습센터)로서의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는 좀처럼 구현되지 않는 것일까? 예컨대 각 학문의 기초적 수준에서 연구지원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장서, 각 주제분야 이용자(또는 고객)의 학문활동을 원활히 지원하는 주제전문사서, 쾌적하고 우아하며 학구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도서관건물, 학문분야별 관문(gateway)의 역할을 하는 디지털도서관, 대학강의와 자료를 원활히 이어주는 지정도서제(reserve book system), 자신의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사서, 팀원들의 재량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 의사전달과 협의가 자연스러운 대학도서관 조직, 대학의 사명에 부응하여 도서관 조직 전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수년 마다 갱신되는 대학도서관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등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는 제대로(또는 충분히) 구현되어 있지는 못하다.

한국 문헌정보학은 광복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서구의 선진 도서관의 모습과 선진 문헌정보학 이론을 충실히 소개하고 근사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예컨대 교수신분(faculty status)을 가진 주제전문사서를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거나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는 외형적으로는 정보기술의 도입 등 발전한 면이 많으나, 대학도서관의 기본적 사명의 구현이나 조직 및 인력개발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적으로 말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진정 ‘대학의 심장’인가? 또한 교수와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문활동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사서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있는가? 적어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는 모든 학문분야의 기본적인 장서가 구축되어 있으며 핵심적인 학술지가 결호(missing issue)없이 구비되어 있

42) 이종민, “유비쿼터스 도서관과 과제,” 전자신문 홈페이지, <<http://www.etnews.co.kr/>> [인용 2005. 2. 16].

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대학사회의 구성원은 선뜻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 나는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한국 대학도서관의 식민적 구조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대학도서관에는 한편으로 첨단 기술이 밀려들고 있지만, 전근대적인 의식구조와 조직 생리가 여전히 따리를 틀고 있다. 도서관장직은 전문직 사서(1급 정사서)가 전임의 형태로 맡아 오랜 기간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도서관 현실에서 이는 교수들이 보직의 형태로 맡아 1~2년 정도 머무르다가 물러나는 자리이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대부분 당연시할 뿐, 도서관장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무지하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서비스는 각 학문의 구조와 동향을 파악하고 이용자들의 학문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서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선 사서들은 상의하달식 관료주의와 기능적 조직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무사안일주의에 젖어들기 쉬울 뿐, ‘연구하는’ 사서가 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사서가 대학원에 진학하여 계속교육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소속 도서관의 상관이나 동료의 눈치를 심하게 보아야 한다. 대개의 경우, 대학원 진학 사실을 숨겨야 한다.

김정근은 이러한 한국 대학도서관의 식민 상황을 백일하에 드러내어 그 문제의 구조적 심각성을 명백하게 밝혔다. 다소 길지만 아래에 그의 글을 옮겨본다.

이 나라의 도서관은 광복50년에 아직도 부끄러운 식민지 조직이다. 아직도 거기에는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는 것이다. 지배자 의식이 있는가 하면 피지배자 의식이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도서관 가운데 그 대부분은 아직도 도서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도서관을 사랑하지도 않는 ‘침략자’들에 의하여 관리, 지도되고 있다. 자료와 정보의 수집, 조직, 보존, 서비스라고 하는 섬세한 업무과정에 대하여 한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순전히 자신들의 탐욕과 필요에 따라 관장입네, 관리자입네 하고 제일 좋은 방에 비티고 앉아있는 것이다. ... 비전문직 관장 문제의 거론이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 속에서 금기시되고 회피되고 기피된 데에는 또 하나의 말하기조차 거북한 사정이 있는 듯하다. 사서직, 특히 도서관의 중간관리층이 견지하는 집단무의식의 요소가 거기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비전문직 관장은 다루기가 ‘쉽다’, ‘편하다’는 것이다. 이 심리의 다른 면은 전문직 관장은 ‘어렵다’, ‘불편하다’는 것이 된다. ... 한번 따져보자. 우선, 어른이면 어른답게 처신을 해야지!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책임을 떠맡는가 말이다. 왜 능력에도 없는 책임을 떠맡는가 말이다. 왜 말단 직원보다도 더 모르면서 조직의 꼭대기에 앉는가 말이다. 우리는 과연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을 모시느라고 도서관 조직의 와해를 보고만 있어도 되는 것인가. 중세적 복종심, 실리주의, 좌절, 소심증의 포로로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말인가.<sup>43)</sup>

이러한 글을 통하여, 독자들은 알고도 모른 척했거나 넘겨버렸던 한국 대학도서관의 식민주조를

43) 김정근(1995), 전계논문, pp.89-91.

보다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부조리한 현실이 엄존하고 있는데,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현실개선을 위한 노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근은 나아가 이러한 식민지 총독으로서의 도서관장에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비전문직 관장들의 '불안'과 '미안'은 다채로운 부작용과 병폐로 이어진다. 어떤 경우는 부임 첫날 저녁에 바로 무리를 저지르고 만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우선 한턱을 내고 보는 것이다. 대체로 간부직원들을 상대로 작전을 편다. 갈비 또는 생선회가 그득히 놓인 상 앞에서 신입 관장은 점잖게 한마디 한다. '수고가 많다', '여러분의 수고는 내가 안다', '화목하게 지내자'. 그리고는 도서관과 사서진이 당면한 업무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모르니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업무 자체야 뭐 별 것 있겠는가. 인화가 제일이다'라고 수를 두기도 한다. 그리고는 자신으로 말하면 대학의 원로라는 점, 대학본부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는 등을 슬며시 내세워 둔다. 결국 이것은 무엇인가. 허세와 봉건의 윤리를 내세워 부하직원들을 그대로 무찌르자는 통치 전술에 다름 아니다. ... 점잖은 학자가 도서관장직에 오르는 순간 그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식민주의자', '압제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아닌가. 이것은 바로 식민지시대 조선총독의 희유수법 그대로가 아닌가. 이래서 한국의 점잖은 학자는 격에 맞지 않는 감투를 뒤집어씌우으로써 자기 자신을 왜소화시키고 동시에 사서진을 왜소화시키는 것인지도 모른다.44)

식민지로서의 도서관, 식민지 총독으로서의 도서관장,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도서관 직원, 이 모두가 이른바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서도 한국 대학도서관현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또한 첨단적인 정보기술의 유입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전근대적 폐습의 이미지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한편 이용자들은 어떤가? 학부생들은 도서관에서 자습할 자리에 눈독을 들인다. 항상 자료부족에 허덕이는 대학원생들은 대학도서관에 대한 기대치가 높는데, 이들의 기대는 심증팔구 실망으로 이어진다. 대학도서관에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도적인 연구자인 교수는 어떤가? 많은 교수들이 도서관과 그 장서를 외면한다. 교수들은 대체로 도서관이라는 경로 외에 백방으로 각자 애를 써서 연구자료를 구한다. 그러면서도 교수들은 각 전공분야의 핵심을 이루는 책이나 자료를 도서관에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대학본부는 어떤가? '멀티미디어', '디지털도서관', '모바일 캠퍼스' 등을 내세우며 전시행정에 급급할 뿐, 장기적 비전과 인내를 가지고 대학도서관을 가꾸어나가는 일에는 무지하거나 소홀히 대처한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처해 있는 현실에는 이처럼 전근대적, 식민적 독소가 존재하는데, 우리 대학사회는 이러한 요소를 모르거나 알아도 애써 외면하려 한다. 또한 한국의 문헌정보학자는 서구 이론의 도입과 적용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는 마땅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그러한 수십 년 간의 왕성한 연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서관 현장의 기본과제는 여전히 해

44) 상계논문, p.92.

결되지 않고 있음을 본격적으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학도서관 현장의 문제는 육박전을 치르듯 상대하고 우리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영토를 찾아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는 선진국의 고급 이론을 논하며 마치 다른 나라의 전쟁에 자문을 해 주는 군사고문(military adviser)과 같은 역할을 자신도 모르게 수행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볼 필요는 없을까?

## V. ‘우리’ 대학도서관 경영을 위한 탈식민성 담론 전략

나는 한국 대학도서관의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 대학도서관이 처한 현단계(present stage)를 규명하고 그러한 현단계에 맞는 연구 전략 및 전술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의 연구의 일환으로 나는 한국 대학도서관의 주제화에 대해 장기간 연구하여 나름대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sup>45)</sup>

나는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주제화라는 연구과제를 놓고 한국 대학도서관 사서가 이용자의 학문 활동을 동반하는 자세로 지원하는 ‘학문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학도서관 사서라면 어떤 부서에 있는 기본적으로 ‘주제(subject)’라는 통로로 이용자와 만나야 하며, 사서들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용자의 주제별 정보요구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나는 한국 대학도서관 사서진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인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단계에서 대학도서관 사서진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굴레와 난관을 감안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서구의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주제사서(subject librarian)’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의 선행연구<sup>46)</sup>에서 나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으로 전략적 계획의 수립, 조직활성화, 사서의 역할 강화,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부분을 제외한 대학도서관 내부의 발전을 위한 탈식민성 담론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적 전략적 계획 수립

나는 한국 대학도서관의 현단계에서 여러 가지 식민적 장애물 돌파 방안 중의 하나로 ‘전략적

45) 이에 대해서는 줄져, 주제화를 통해본 한국 대학도서관의 현단계(서울: 한울, 2002)를 참조하시오.

46) 이용재, “21세기 한국 대학도서관의 현단계와 발전전략,” 국립중앙도서관 500만 장서 달성 기념 학술대회(2004. 9. 15,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 pp.3-27.

계획(strategic plan)의 수립과 천명'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사서진이 일의 주체적 담지자로서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전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도서관 조직 내부의 역량과 외부의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학의 학문적 지향과 부합하는 대학도서관의 사명을 사서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과 그 직원은 성문화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서비스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한국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이상과 비전을 정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서비스의 목적(goal)과 목표(objective)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의 도서관이 직면한 외부환경의 기회(opportunities) 요인과 위협(threats) 요인에 도서관이 가진 강점(strength) 요인과 약점(weakness) 요인을 대조·분석하는 SWOT분석을 행하여 각 도서관의 현단계에 맞는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구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경우, 사서진이 주체적으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수 년 마다 중견 사서로 구성되는 테스크포스가 도서관 내외부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하여 이를 갱신한다. 우리나라 사서진도 이제 대학본부나 도서관장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르고 현상유지 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명과 역할을 스스로 확인하여 이를 도서관 내외부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전략적 계획의 천명과 구체적 실천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 및 후원자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피식민 백성으로서의 사서 이미지가 아닌 주도적 업무수행자로서 사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대학도서관의 경우 이러한 전략적 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조직전체가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다. 즉, 도서관과 사서의 정체성에 대해 본격적이고 진지하게 자문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사서진 내부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해 실무모임의 토론회, 사서연구회, 브레인스토밍, 인터넷의 게시판, 전자형태의 설문조사, 중견 사서 또는 핵심 직원에 대한 일대일 인터뷰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관 직원들에게 제시하는 질문도 정형화된 것보다는 비정형적이고 포괄적인 형태가 좋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용자를 얼마나 아는가?” “우리 대학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소 막연하게 보이는 질문을 제시하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직원 각자가 평소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도서관의 자화상을 있는 그대로 그린 뒤, 5년 뒤의 향상된 자화상을 직원 모두가 함께 그려본다.

## 2. 한국형 조직활성화 전략 강구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도서관 조직은 ‘학습조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학습조직은 ‘지식의 생산, 수집, 전달을 원활히 수행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을 별다른 무리없이 수정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조직에서는 모든 직원이 새로운 기술과 기법을 계속적으로 배우도록 권장되지만, 그러한 학습은 반드시 조직의 운영을 개선하는데 일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는 현재 많은 사서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형태로 계속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개인차원에서 그칠 뿐 조직 전체가 학습사회가 되는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본다.

한국 대학도서관의 조직환경에서 학습조직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관료적, 위계적, 권위적 구조와 사고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 조직학습의 측면과 개인학습의 측면에서 생각하여 보았다.

조직학습의 측면에서는 첫째, 사서들의 자발적인 연구조직인 '사서연구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대학의 장려, 도서관장과 중간관리자의 후원이 필요하다. 도서관 현장의 일선 사서 중심으로 연구회를 조직하고 활동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겠다. 둘째, 일상적인 분임토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토론은 도서관의 각 부서와 실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인터넷이나 인트라넷과 같은 가상공간에서 각 사서가 자신의 업무나 관심분야별로 특정 그룹에 소속되어 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의 사례로서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속의 직원용 공간, 도서관매일링리스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의 사서커뮤니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개인학습의 측면에서는 사서 개인이 각종 학회 및 협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와 워크숍 참여, 캠퍼스 강의 수강 및 청강, 인터넷에 기반한 자기학습과 원격 교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도서관이 학습조직이 되려면 구성원 사이에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식이나 조직문화가 일반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지식경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은 모든 직원이 서비스 현장에서 각자 일상적으로 생산하는 형식지와 암묵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영의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이 수집해야 할 형식지는 무엇보다도 각종 업무관련 문서, 도서관소식지, 계획안, 토론기록 등이다. 이를 위해 각 직원의 일상적인 업무과정이 가능한 한 문서로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직원의 업무가 자세히 기술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 문자와 기록과 함께 사는 사서들이 정작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지식경영 차원에서 수집된 산발적 기록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업무매뉴얼의 형태로 발전하거나 도서관의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잠재하는 암묵지를 가능한 한 많이 형식지로 변환하여 지식공유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수서 사서, 정리 사서, 참고 사서가 각자의 서비스과정에서 보유하는 암묵지를 업무편람, 웹 기반 지식저장소 등을 통하여 형식지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인트라넷을 통한 의사소통, 직원 교류교육 등을 통하여 지식공유의 최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이루어진 대학도서관의 조직상 변화 중에서 가장 극적인 것은 수직화된 계층 조직에서 수평화된 전문가 조직으로 점차 무게중심이 이동되어 온 것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이

것은 도서관이 상의하달식의 계층적, 관료적 구조에서 참여경영, TQM(total quality management), 과업지향적 시스템, 팀제(team system) 등의 개념들이 반영된 수평적 조직으로 점차 변화되어 온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평적 조직에서는 정규적이거나 비정규적인 팀의 조직 및 운영, 팀 단위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과 공동작업,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막론한 실무자 및 관리자 사이의 원활한 협력 등이 점차 중요해진다. 또한 각 직원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부서의 경계를 넘어 조직 전체에 걸친 상호협력이 더욱 요청된다. 팀은 소수의 인력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공동작업의 단위이다. 계층적 구조에서는 신분과 서열이 명확한 데 비하여, 팀제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며, 팀 구성원의 개체성과 능력을 중시한다. 이러한 팀제가 현대의 각종 조직에 도입되는 목적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이며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종전의 수직적 조직인 과(계) 조직을 수평적인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팀제는 다운사이징, 리엔지니어링, 전략적 계획 등의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특히 사립대학교 도서관에서 지난 수년간 손쉬운 수단으로 채택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팀제는 그다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주된 원인으로 팀제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팀제의 핵심요소는 권한의 위임이며 그 성패는 팀장의 역할에 달려 있다. 관장은 조직전체 통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팀장에게 위임하고 팀장은 유연한 리더십과 해박한 업무지식을 바탕으로 팀원이 공동작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팀을 이끌고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sup>47)</sup> 그런데 국내 대학도서관의 위계적이고 경직적인 조직문화나 관행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팀제가 형식에 그친 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업무평가와 권한위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의 재량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업무평가 기준을 마련한 뒤, 그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사서주도성 강화

지식기반시대에서 대학도서관에 대한 제반 도전과 위협 요소를 기회 요소로 바꾸어 ‘도서관의 황금시대’<sup>48)</sup>를 구현할 수 있는 주체는 대학도서관 사서진이다. 이처럼 디지털시대는 도서관의 경영과 서비스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으며, 도서관과 사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전통적 가치와 서비스정신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서비스의 장을 열기 위해 이러한 도전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47) 윤희윤, “대학도서관 경영개혁의 동향과 반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1호(2001, 3), pp.47-48.

48) Scott Bennett, “The golden age of librarie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27, no.4(July, 2001), pp.256-259.

최근의 국내 도서관경영 분야 연구에서 논의된 한국 대학도서관의 활성화 방향은 첫째, 지식자원의 확충과 정보공유 네트워크의 정비, 둘째, 대학교육과 학술활동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사서 인력의 양성과 확충, 셋째, 대학도서관이 학술정보를 수집·보존·조직·가공·제공하는 학술광장이 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의 수립과 이행, 넷째,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경영기법의 활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특히 대학도서관 운영의 주체인 사서 인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나아가 사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식기반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은 단순 열람실 기능에서 탈피하여 교육·학술연구를 원활히 지원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핵심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부속시설'이 아닌 '교육기본시설'이 되어야 한다. 최근(2004년 3월 5일)에 공포된 대학설립·운영규정중개정령에 따르면 도서관은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학생회관·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과 함께 대학의 교육기본시설로 지정되었으며 도서관에는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과 같은 시설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한편 대학도서관과 통합대상으로 곧잘 거론되는 전산소의 경우는 교육기본시설이 아니라 지원시설로 지정되었다. 이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대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법률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대학도서관의 위상 강화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하여 열람실 기능 위주에서 벗어나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또한 전국 대학도서관이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식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이용자가 정보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도록 지식관리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서가 대학의 교육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대학의 각종 구성원들에게 도서관 및 소장자료, 학술데이터베이스 이용법을 알려주고, 지정도서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교과과정과 연계한 자료를 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과 대학도서관은 각 주제분야 학자의 학문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서 인력을 배치하고 '주제사서(subject librarian)'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나는 한국 대학도서관의 현단계를 깊이 관찰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주제사서'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왔다. 여기서의 주제사서란 서구 선진국의 대학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주제전문사서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제전문사서가 주제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관련 주제영역의 자료를 선정,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아울러 정보서비스와 서지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 직원을 의미한다면, 주제사서는 관련성이 높은 여러 학문분야를 담당하여 이용자 및 서지연구, 출판동향의 파악, 자료안내 서비스, 이용자교육, 자료선정 및 장서평가 등을 통하여 담당 주제분야에 대한 '내용적' 지식보다는 '서지적' 지식을 축적해나가는 인력을 말한다.<sup>49)</sup>

49) 이용재, 전게서, pp.50-52.

현실도서관에서나 가상도서관에서나 사서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각종 경로와 매체를 통하여 수집(Collection)-보존(Preservation)-조직(Organization)-제공(Dissemination)<sup>50)</sup>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서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업무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 전반에 필요한 전문능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 동안 도서관의 업무의 중심이었던 각종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과 관련한 MARC이나 메타데이터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CIP(Cataloging in Publication) 제도, 디지털문자식별자(DOI) 등 날로 변화하는 관련 기술을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sup>51)</sup>

대학도서관 사서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자들에 대한 학문적 동반자가 될 필요가 있다. 교수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보다 신속하게 구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보다도 광막한 정보의 모래밭에서 지식과 지혜와 같은 금을 캐거나 정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철학이 마련된다면 그 바탕에서 대학도서관 서비스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교수들의 자료선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선된 서지도구(목록)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주제별 기본장서를 함께 구축해나가는 일, 학과·교수·연구소와의 지속적인 교류관계(liaison)를 유지하여 학내의 강의와 연구에 보다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일, 현실도서관의 주제자료실과 디지털도서관의 주제별 게이트웨이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양질의 장서와 콘텐츠를 구축하고 안내하는 일, 즉답형 질문에서 연구형 질문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정보요구에 최선을 다하여 응답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신간안내를 대학신문과 도서관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일, 각종 문헌과 매체에 대한 소개 또는 비평을 제공하는 일, 방학 시작 전 다음 학기 모든 강의의 교수계획서를 수집하고 방학 동안 교재, 부교재, 참고문헌으로 사용되는 각종 책, 논문, 자료를 지정도서실(reserve room)에 정리하여 배치하는 일, 고객들이 잘 구할 수 없는 각종 정기간행물, 연구결과물, 학회발표문, 세미나 자료 등을 구하여 소장하는 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이용자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일 등과 같은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예들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상당 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의 유의점은 사서직이 인류역사와 함께 가꾸어온 전통적 서비스의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며 아울러 인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사서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척해나가려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사서는 경영자, 기획자, 조직개발자, 변화관리자, 프로그램운영자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 사서는 다양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기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50) Allan D. Pratt, *Information of the Image*, 2nd ed. (Greenwich, CT: Ablex Publishing, 1988), p.50.

51) 이용훈,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도서관*, 제57권, 제1호(2002, 봄), p.25.

여기서 다시 한번 한국 대학도서관의 관장직에 대한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도서관 선진국에서는 도서관 서비스와 경영의 전문가인 사서에게 도서관장직을 맡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들 도서관선진국에서 대학도서관장(University Librarian)은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하고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논문을 많이 생산한 베테랑 사서이며, 이 사서가 전임(full-time)의 형태로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대학도서관의 비전과 전략적 계획을 제시하고 도서관의 각종 부서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이 ‘식민지’로, 도서관장이 ‘식민지총독’으로, 도서관 직원이 ‘식민지백성’으로 기능하는 면이 있다. 김정근은 이러한 식민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1급 정사서”, “하루종일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도서관 실무를 책임지는 전문관리직 형태”, “애초부터 ‘관장’으로 채용되는 전문직 관장”을 제시하고 있다.<sup>52)</sup>

국내의 경우 도서관장이 교무위원회를 포함하여 학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이 많은데, 이 부분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도서관을 대학의 심장이자 절반으로 간주하는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대학도서관에 대한 대학 당국의 빈곤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디지털시대의 격랑을 헤치고 나가는 대학도서관에는 이제 전문적 서비스와 리더십이 더욱 요청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 사서는 이에 대해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VI. 결론에 대신하여 - ‘창조학’으로서의 문헌정보학

이상에서 국내 인문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을 조망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탈식민성 담론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 대학도서관의 식민주조와 관련된 기본 문제를 밝혀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현단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경영을 위한 탈식민성 담론 차원의 발전전략을 나름대로 몇 가지 제시하여 보았다.

조동일은 우리 학계의 경향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수입학’으로 “남의 학문 가져와서 자랑하기”이다. 둘째, ‘시비학’으로 “남의 학문 가져와서 나무라기”이다. 셋째, ‘자립학’으로 “우리 학문으로 남의 학문 막아내기”이다. 넷째, ‘창조학’으로 “우리 학문으로 남의 학문 넘어 서기”이다.<sup>53)</sup>

수입학은 먼 곳의 학문을 한국에서도 알게 하고 지식의 양을 늘려주는 공적이 있으나 그 폐단은 남들의 학문을 특별한 검증없이 쉽사리 신뢰하고, 스스로 다시 연구하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자기네가 하고 있는 일의 의의를 일반화하는 점이다. 자국 학문의 자립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끊임

52) 김정근, “문제는 ‘관장’이다: 대학도서관 조직운영의 허위성을 중심으로”, 전국사서협회 소식, 제5권, 제5호(1996, 6), pp.27-39.

53) 조동일, 인문학문의 사명(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p.30-31.

없이 수입상의 역할에 몰두하며 학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sup>54)</sup> 시비학은 비판적인 글읽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노선으로 학문의 내용이 아닌 태도이기 때문에 학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이나, 비판에만 그치는 일은 학문이 아닌 소모적인 논란에 머무를 수 있다.<sup>55)</sup> 자립학은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국학으로 양학에 맞서는 정당방위 행위이다. 이는 식민지시대에 부당하게 폄하되고 무시된 민족사회의 내력이나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아 알린다. 수입학이나 시비학에서는 남의 것을 가져오는 소비자 노릇을 하는 것에 반해, 자립학은 한국의 고전을 탐색하고 논저를 써 내는 등 생산자 노릇을 한다. 그러나 자칫 국수적이고 고립적인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틀 속에 갇힐 수 있다.<sup>56)</sup>

창조학은 국학을 세계화하는 학문이다. 자립학으로 수입학을 막아내는 소극적인 자세를 떨쳐 버리고, 세계적인 범위의 일반이론을 창조하는데서 수입학과 적극적으로 경쟁해서 앞서 나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료학에 머무르는 자립학을 이론학으로 전환시키고, 시비학에서 막연하게 주장하는 바를 대안으로 제시해 구체화하는 창조적인 작업을 한다.<sup>57)</sup> 조동일의 분류에 근거하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은 주로 선진국의 이론을 도입하여 소개하는 수입학의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외국 이론을 가져와 감론을박하는 시비학으로서의 면모도 보인다.

한편, 내가 이 글에서 논한 한국 대학도서관 경영을 위한 탈식민성 담론 전략은 일견 자립학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의 대학도서관 현실에 근거하여 이곳에서 건져 올린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이고 현실적합적인 연구를 하자는 주장은 자립학의 일종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학'으로서의 '우리 문헌정보학'에 대한 모색이다. 언제 끝날 지도 모르는 수입상의 역할, 이 땅에 착지할 수 없는 공허한 또한 국적없는 시비적 논의, 외국 이론에 대한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태도 등 이 모든 것을 지양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다만, 나는 이러한 방향의 기초적 논의로 선진 외국 이론의 비판적 수용, 그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성찰하는 것,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 배태된 이론을 현재의 이 땅에 맞는 맥락으로 재구성하는 것, 통시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와 기본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도서관의 현단계에 맞는 탈식민적 담론 전략을 강구하는 것, 나아가 우리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학술운동적 차원의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54) 상계서, p.32.  
 55) 상계서, p.41.  
 56) 상계서, pp.45-49.  
 57) 상계서, p.49.